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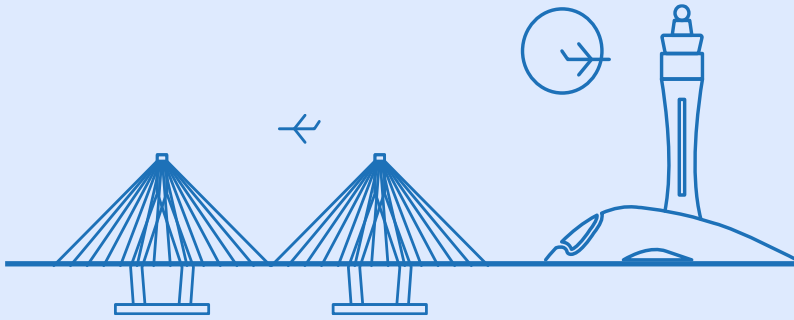
발행일 2025. 8. 7.(목) 통권 제303호

발행처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2층

연락처 032-440-8031

- 01 주간 감염병 소식
- 02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 03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 04 인천광역시 말라리아 발생 현황
- 05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 06 홍보자료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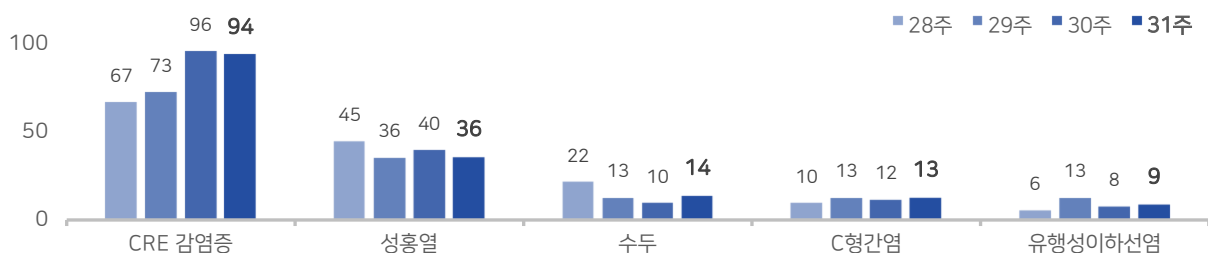
주간 감염병 소식

전국 및 인천광역시 감염병 누적 신고 현황



- (전국) 전국 감염병은 CRE 감염증 28,387, 수두 19,495건, 성홍열 8,208건, 백일해 5,286건, 유행성이하선염 4,429건 순으로 신고됨
- (인천)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CRE 감염증 2,227건, 성홍열 883건, 수두 768건, C형간염 300건, 백일해 262건 순으로 신고됨
- 신고현황은 '25. 8. 6.(수)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25년 누적기간(1주차~31주차)에 신고된 다빈도 5개 감염병에 대한 누적신고 건수임

인천광역시 다빈도 감염병 주요 신고 현황



- 31주차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총 176건 신고되었으며, 최근 3주(2025년 28주~2025년 30주) 평균(174건) 대비 2건 증가함
- 신고수 상위 5개 감염병은 CRE 감염증 94건, 성홍열 36, 수두 14건, C형간염 13건, 유행성이하선염 9건 순서임
- 소식지 내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2페이지)을 참조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구 분	인천								전국				
	2025				동기간대비(1-31주)				동기간대비(1-31주)				
	31주	30주	29주	28주	2025	2024	증감	5년평균	2025	2024	증감	5년평균	
1급													
보툴리눔독소증													0
수두	14	10	13	22	768	747	▲ 21	688	19,495	19,552	▼ 57	15,673	
홍역					2	2	- 0	1	67	47	▲ 20	24	
장티푸스					1	2	▼ 1	1	18	21	▼ 3	23	
파라티푸스						1	▼ 1	1	6	7	▼ 1	10	
세균성이질					2	3	▼ 1	2	33	25	▲ 8	24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1	15	6	▲ 9	6	253	164	▲ 89	155	
A형간염	1		1		40	45	▼ 5	112	694	784	▼ 90	1,543	
백일해	1	9	2	1	262	2,245	▼ 1,983	502	5,286	16,501	▼ 11,215	4,368	
2급	9	8	13	6	248	226	▲ 22	246	4,429	4,301	▲ 128	4,598	
유행성이하선염													
수막구균 감염증									7	13	▼ 6	6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	1	- 0	1	
폐렴구균 감염증				3	20	24	▼ 4	20	300	298	▲ 2	247	
한센병									1	3	▼ 2	2	
성홍열	36	40	36	45	883	328	▲ 555	253	8,208	3,704	▲ 4,504	2,604	
VRSA 감염증		1			1		▲ 1	0	2	1	▲ 1	1	
CRE 감염증	94	96	73	67	2,227	2,073	▲ 154	1,724	28,387	24,387	▲ 4,000	20,744	
E형간염		2	1		18	23	▼ 5	14	475	424	▲ 51	356	
파상풍					2	3	▼ 1	1	14	16	▼ 2	14	
B형간염		1			11	12	▼ 1	13	143	142	▲ 1	193	
일본뇌염										1	▼ 1	0	
C형간염	13	12	13	10	300	336	▼ 36	382	3,452	4,049	▼ 597	4,765	
말라리아	2	5	4	11	65	75	▼ 10	52	374	428	▼ 54	339	
레지오넬라증		2	1	1	13	20	▼ 7	16	304	254	▲ 50	249	
비브리오패혈증								0	5	9	▼ 4	7	
발진열					1	6	▼ 5	2	8	20	▼ 12	7	
프프가무시증					1	3	▼ 2	5	182	832	▼ 650	581	
렙토스피라증								1	21	26	▼ 5	31	
브루셀라증									4	5	▼ 1	4	
3급													
신증후군출혈열					3	2	▲ 1	2	107	147	▼ 40	134	
CJD/vCJD					3	5	▼ 2	2	33	36	▼ 3	40	
덴기열					5	7	▼ 2	4	56	112	▼ 56	57	
큐열					1	1	- 0	1	33	38	▼ 5	31	
라임병						1	▼ 1	1	20	19	▲ 1	13	
유비저									3	1	▲ 2	2	
치쿤구니아열									1	2	▼ 1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1	▼ 1	0	133	78	▲ 55	89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3		▲ 3	1	
엡폭스									7	10	▼ 3	9	
매독	6	3	4	5	105	91	▲ 14	98	1,322	1,663	▼ 341	1,493	
매독(선천성)					1		▲ 1	1	8	7	▲ 1	8	

- 31주차(2025. 7. 27. ~ 2025. 8. 2.) 전수감시 신고 현황은 2025. 8. 6(수)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2025년 통계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5년 평균은 최근 5년(2021-2025)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이며 엡폭스, 매독, 매독(선천성)은 최근 2년(2024-2025)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2항에 따라 국가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기초로 집계되며, 감염병별 신고범위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포함될 수 있음

- 지역별 통계는 환자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함 (단,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은 신고한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임)

- 최근 5년(2021-2025)동안 발생이 없었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리스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아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증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콜레라, 풍진, 폴리오, 발진티푸스, 공수병, 황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은 제외함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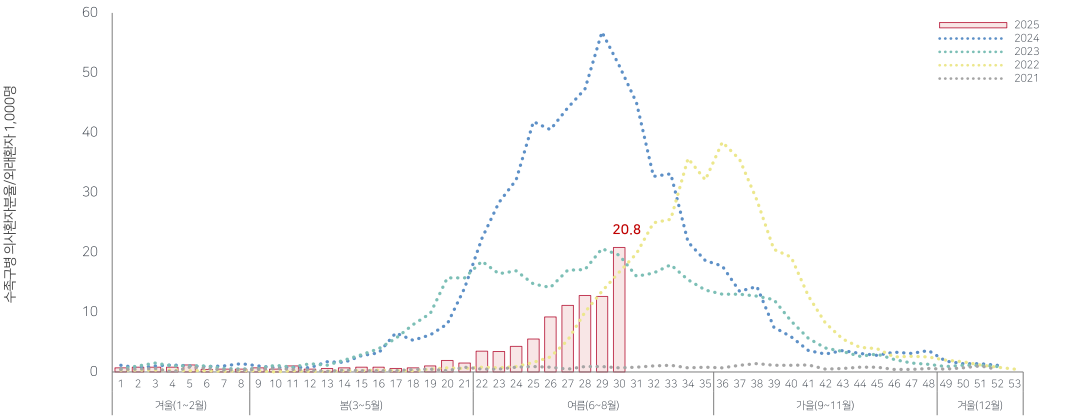
주별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임상감시 현황

- (전국) 30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0.8명으로 전주(12.6명) 대비 증가

단위: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구분	2025년							
	23주	24주	25주	26주	27주	28주	29주	30주
전체	3.4	4.3	5.5	9.2	11.1	12.8	12.6	20.8
전국 0-6세	4.0	6.1	7.7	12.9	15.0	18.1	17.5	27.8
7-18세	2.2	1.3	1.9	2.6	3.5	2.2	2.3	5.7

2021-2025년 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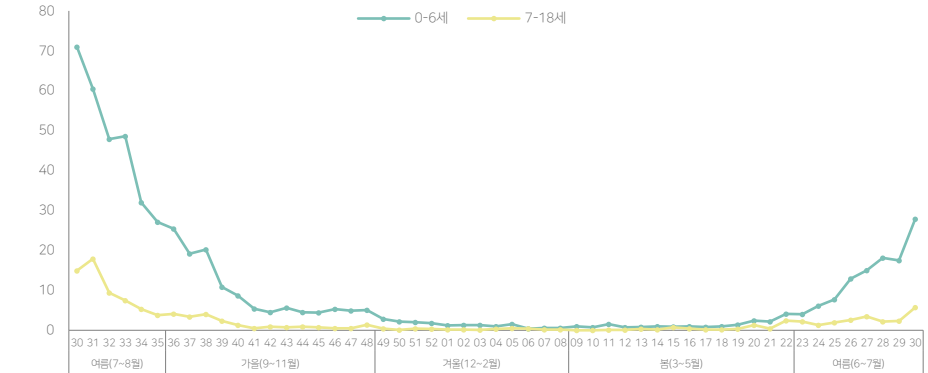


1)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분율) =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 x 1,000

2025년 30주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국)



최근 1년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국)



- 30주차(2025.7.20~2025.7.26.) 표본감시 현황은 2025.8.4.(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및 2025년도 30주차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수족구병 의사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의사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수행기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 전국 110개 수족구병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인천광역시 말라리아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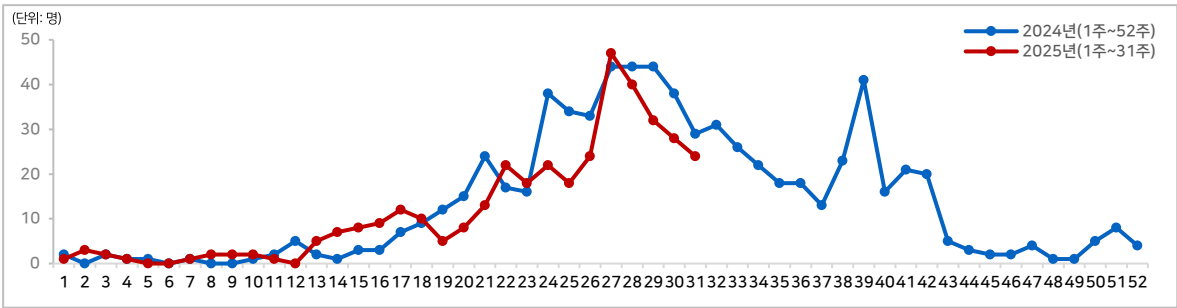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

- (전국) 2025년(1주~31주) 총 374명(31주 신규 24명), 전년 동기간 428명 대비 54명(12.6%) 감소
- (인천) 2025년(1주~31주) 총 65명(31주 신규 2명), 전년 동기간 75명 대비 10명(13.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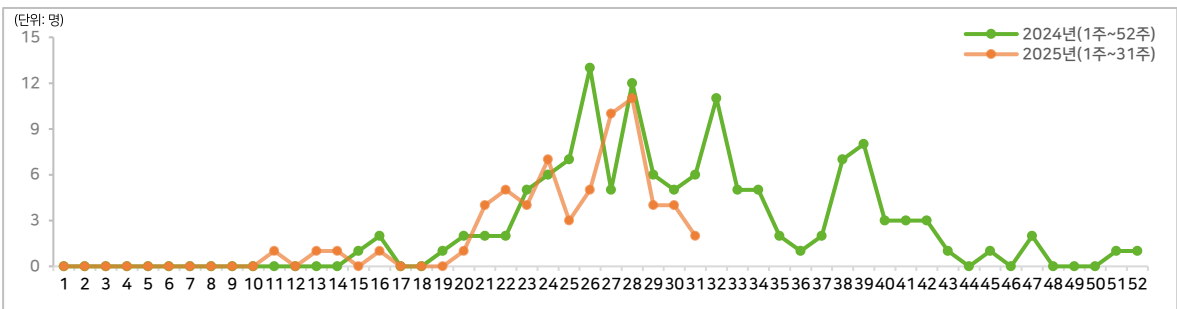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4주	25주	26주	27주	28주	29주	30주	31주
전국	누계	154	172	196	244	285	317	350	374
	주간 신규발생	22	18	24	48	41	32	33	24
인천	누계	25	28	33	43	54	58	63	65
	주간 신규발생	7	3	5	10	11	4	5	2

(전국) 전년 대비 주별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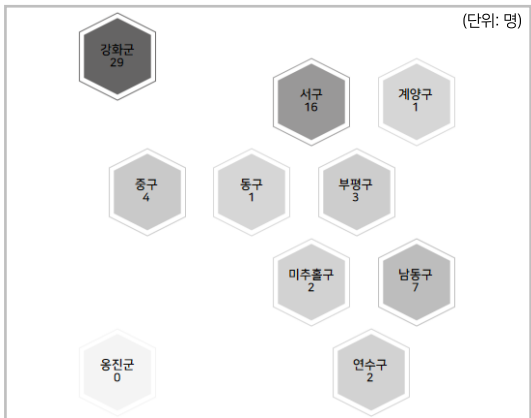
(인천) 전년 대비 주별 발생 추이



지역별 발생 현황(주소지 기준)

- (신고수) 2025년(1주~31주) 강화군 29명(44.6%), 서구 16명(24.6%), 남동구 7명(10.8%), 중구 4명(6.2%), 부평구 3명(4.6%), 미추홀구·연수구 각 2명(3.1%), 동구·계양구 각 1명(1.5%) 순으로 발생
- (발생률) 2025년(1주~31주) 강화군 41.91명, 서구 2.54명, 중구 2.45명, 동구 1.70명, 남동구 1.43명 순

지역별 발생 분포(신고수)



지역별 발생 분포(발생률)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국내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 전남에서 채집모기의 50%이상이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됨에 따라 8월1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30일(31주차) 전남 완도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60.1%(633마리/1,053마리)로 확인되어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함
 - 올해 일본뇌염 경보발령일은 전년('24.7.25.) 대비 지속된 폭우와 폭염 등의 기상 영향으로 모기 개체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1주 지연된 경보 발령임
-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며, 8~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정점에 달하고, 10월 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관찰됨
 -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시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음
 -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증상이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음
- 아울러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12세 이하 어린이(2012.1.1. 이후 출생자)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함
 -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위험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하고 있음
-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야외활동시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받을 것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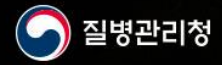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국외 치쿤구니아열

- (중국) 광둥성에서 포산시 중심의 치쿤구니아열 발생 증가

- 최근 중국 광둥성에서 치쿤구니아열 발생이 증가하여 '25년(~7.26.) 총 4,824명이 보고되었고 대부분이 포산시에서 발생함
 - 모두 경증으로 현재까지 중증 사례와 사망자는 없으며 3,224명이 회복되었거나 의학적 감시가 종료됨
- 광둥성 보건당국은 치쿤구니아열 감염 예방 주의 사항으로 고인물 제거, 문·창문에 방충망 설치 등을 안내하였고, 치쿤구니아열 확산 방지를 위해 모기 방제를 실시하 모기퇴치 캠페인과 모기물림 예방을 홍보함
 - 또한, 모기 유충을 먹도록 물고기 5,000마리 이상을 호수에 방류하고, 드론으로 옥상, 창고 등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고인물을 확인하고 잠재적 모기 서식지를 청소하도록 촉구함
- 한편, 마카오와 홍콩은 포산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마카오에서 '25년 총 4명의 치쿤구니아열 발생(모두 유입사례)이 보고되었고, 이 중 3명이 잠복기 동안 포산시를 여행하였음
 - 홍콩은 '16년부터 '19년까지 매년 유입 사례 1~11명을 보고 했으나, '20년 이후 치쿤구니아열 발생이 보고되지 않음
- WHO는 최근 프랑스령 레위니옹 및 마요트 포함 인도양 지역 등의 치쿤구니아열 유행이 '05년 대규모 유행 당시의 초기 징후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현 상황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05년처럼 전 세계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 아울러 최근 한 연구에서는 흰줄숲모기가 유럽, 미국, 중국, 한국, 호주에 널리 서식 중으로 지역적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치쿤구니아열을 해외유입 감염병으로만 인식하기보단 국내 감염 및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 국내에서는 치쿤구니아열 해외 유입 사례만 보고되고 있으며, 치쿤구니아열 유행 지역 여행 시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발열, 관절통, 발진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함

2025.8.1.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25.8.1.)

전라남도 채집 모기 50% 이상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

일본뇌염 예방을 위한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 접종 당부



모기물림 예방수칙



야간 야외활동 자제
(일몰 직후~일출 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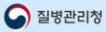
밝은색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사용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 권고



예방접종
실시

2025.7.31. 

모기 매개 감염병, 치쿤구니아열

- 모기 감염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

치쿤구니아열, 치료제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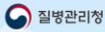
치쿤구니아열 예방수칙은 있나요?

국내 전파 위험은?

✓ 치쿤구니아열이란?

-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급성 열성 질환
- 감염되면 고열과 관절통이 대표 증상

1/7

2025.7.31. 

치쿤구니아열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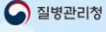
치쿤구니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전파됩니다.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사람 간 직접 전파는 발생하지 않으나,
드물게 수혈, 장기이식 등으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2/7

2025.7.31. 

치쿤구니아열 주요 증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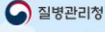
고열

관절통

모기에 물린 후 1~12일 이후 증상이 발현되며,
갑작스러운 발열과 심한 관절통이 대표 증상입니다.
이외에도 두통, 근육통, 관절 부종, 발진이 발생하며,
심근염과 뇌수막염 등 중증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국내 환자의 주요 임상증상은 발열(84.5%), 근육통(63.4%), 관절통(50.7%),
피부질환(45.1%), 두통(32.4%) 순으로, 중증 합병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

3/7

2025.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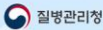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도 발생하나요?

출처: ECDC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에서 풍토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인도양 주변 국가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국내에는 흰줄숲모기만 서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기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내 신고된 환자는
모두 해외방문 후 감염된 사례입니다.
* 2013년 첫 환자 유입 이후, 총 71명 신고(25.7.25. 기준)

4/7

2025.7.31. 

치료제나 백신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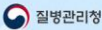


치쿤구니아열에 특화된 치료제는 없으며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합니다.



국내에는 허가 및 상용화된 백신은 없습니다.
(미국 및 EU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

5/7

2025.7.31. 

해외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방문 전

-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기피제 등 모기 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방문 중

- 풀숲, 산속 등 모기 많은 지역 피하기
- 밝은색 긴 옷 착용, 기피제 사용하기
- 취침 시 방충망·모기장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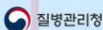
입국 시

- 의심 증상(발열, 관절통 등) 있을 땐 검역관에게 알리기

귀국 후

- 2주 이내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및 여행 이력 알리기
- 귀국 후 헌혈 보류기간(4주) 동안 헌혈 금지

6/7

2025.7.31. 



질병관리청은 입국자 감시부터 환자 대응,
예방수칙 안내 등 치쿤구니아열의
국내 유입과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



보다 나은 정보

안전한 주사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1
주사가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환자가 먹을 수 있으면 가능한
경구약을 처방합니다.



2
먼저 손을 깨끗이!

우리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많습니다. 손위생을 하지 않으면,
주사약과 함께 세균을 주입하게 됩니다.



3
주사준비공간은 청결하게!

지정된 청결한 공간에서 주사를 준비합니다.
소독제로 닦고 건조 후 주사준비를 합니다.

사용하고 난 주사기나 바늘, 수액세트, 검체용기,
혈액이나 각종 체액에 오염된 물건들이 없어야 합니다.



4
새 주사기와 바늘을 사용



5
약물용기와 주사부위
소독을 철저히

바이알 고무마개, 주사부위 포트 또는
주사부위 피부는 70% 이상 알코올로
소독하고, 반드시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6
일회 사용 약물과 주사 용품은
한 환자에게 한 번만 사용하고,
사용 후 바로 버립니다.



주사는 안전하게 해야 치료약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